

17세기 동아시아 소설과 사랑*

— 〈九雲夢〉 〈玉嬌梨〉 〈好色一代男〉의 비교 —

정 병 설**

I. 들어가며

동아시아의 17세기는 역사적 전환기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족 청나라의 지배가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의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 도쿠가와(德川) 幕府에 의한 에도(江戸) 시대가 열렸다. 조선 역시 이웃 나라들의 혼란에 따라 전란을 겪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바로 그것이다. 두 차례의 전면적 국제전을 겪은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 제국이 이런 시련을 겪고 새롭게 안정과 발전으로 접어들던 시기가 바로 17세기 중후반이다. 이 시기 이들 국가에서는 소설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대표작은 모두 남녀의 사랑을 다룬 것이었다. 1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는 소설과 사랑의 바람이 불었던 것이다.

본고는 17세기 소설과 사랑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그리고 작품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각국의 대표작 하나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작품으로는 〈九雲夢〉을 선정하였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玉嬌梨〉와 〈好色一代男〉을 선정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

* 본 논문은 일본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의 공동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동아시아고전 소설비교론”의 일부(필자수행부분)이다. 일본어로 번역된 연구결과물은 『靑丘學術論集』 24, 한국문화연구진흥재단, 2004. 4에 실려 있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운몽)과 〈호색일대담〉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대의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발군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옥교리〉의 선정에는 이견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본고와 유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소설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 중국작품으로 〈금병매〉를 선정한 바 있다. 조동일과 송진영의 연구가 그러한데,¹⁾ 조동일은 ‘소설에 나타난 남녀관계’를 다루면서 ‘동아시아 일부다처소설’의 대표작으로 〈금병매〉와 〈호색일대담〉 그리고 〈구운몽〉을 선정한 바 있으며, 송진영은 성을 중심화두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 소설로 〈금병매〉와 〈호색일대담〉 그리고 〈변강쇠가〉를 들어 비교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금병매〉가 비교 대상으로 더 적합할 듯하지만, 본고는 다음 이유에서 〈옥교리〉를 선정하였다. 첫째 〈금병매〉는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창작 시기가 너무 앞선다. 〈금병매〉나 〈옥교리〉는 모두 정확한 창작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금병매〉는 17세기 초 이전의 明代로 〈옥교리〉는 17세기 중기 이후의 清代로 간주된다. 따라서 동일 시기의 작품을 비교하기에는 〈옥교리〉가 더 적합하다. 둘째 〈옥교리〉는 17세기 중반 이후 중국 재자가인소설의 흐름을 연 작품으로 새로운 사랑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17세기 동아시아에서 불어온 새로운 사랑의 바람을 비교하는 데 〈옥교리〉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구운몽〉은 잘 알려진 바처럼 1687년 金萬重(1637~1692)의 51세 때 宣川 유배지에서 창작되었다. 〈옥교리〉는 17세기 중반 어떤 작가에 의해 창작 간행되었다. 〈호색일대담〉은 1682년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1693)의 41세 때 오사카(大坂)에서 간행되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17세기 중후반에 창작 또는 간행되었으며, 당대에 가장 널리 읽힌 책이었고, 또한 후대의 소설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각국 소설사의 대표작들이다. 또한 이들 세 작품은 모두 남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흥미로운 비교의 대상이 된다. 영향 수용론에 관점에서 보면, 〈구운몽〉이나 〈호색일대담〉은 이웃 나라에서 거의 읽히지 않았지만, 〈옥교리〉 등의 중국소설은 한국이나

1)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3, 지식산업사, 2001, 15~48면.

송진영, 「고대 동아시아의 통속소설연구 - 〈금병매〉 〈호색일대담〉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회』 12, 2002.

일본에서 꽤 읽혔다. 소설에 있어서는 중국이 수출국이었던 셈이다. 다만 〈옥교리〉의 경우,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그것이 출간되자 곧바로 수입되어 읽혔을 뿐만 아니라 번역까지 되었지만,²⁾ 일본에서는 조선을 거쳐 흘러간 것을 제외하고는 〈옥교리〉의 “名敎的 道學先生色彩”가 일본의 오락의식과 잘 맞지 않아서 별로 읽히지 않았다고 한다.³⁾

II. 상업화와 유흥문화

1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에 애정소설이 급부상한 까닭이 무엇일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대전쟁을 치른 조선에서도 17세기 중후반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있었다. 10만이 약간 넘는 전쟁 전의 서울 인구는 양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17세기 후반에는 30만에 육박하였다. 서울 인구의 급증은 서울이 도시적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그 대표적 변화 양상은 상업 지구의 확대다.⁴⁾

조선은 물론 일본에 비해도, 중국의 도시적 성장은 비상이 이른 편이었다. 멀리 송대의 도시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명나라 말기에 이미 강남 지

2) 정병설, 「조선 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동경대 소장 한글 번역본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3) 磯部祐子, 「才子佳人小説對東亞各國的影響:以金雲翹傳和玉嬌梨爲例」, 『第二屆中國古代小説國際研討會論文集』, 上海師範大學人文學院 中國社科院文學所中國古代小説研究中心, 2002, 483면.

4) 장지연, 「조선시대 도시사회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명청사연구』 17, 2002, 73-77면 참조. 여기서는 “1394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직후의 한양의 인구에 대한 1차 사료는 없으나 실록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15세기 성 안의 인구는 10만 3천 3백 28인이며, 城底十里에는 6천 44인으로 약 11만 명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준의 인구는 임진왜란이 있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란을 거치면서 급감하였고, 17세기경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한국사학계에서는 〈實錄〉과 〈日省錄〉(備邊司臈錄) 같은 편년 사료 및 정부 관서 문서 등을 통하여 17세기 후반 이후 한성이 급속히 상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18세기에는 30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436면에서도 17세기 후반을 서울의 도시적 성장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역은 상당한 도시적 면모를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도시화는 상업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일본도 조선과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도시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반영한 것인데, 〈호색일대남〉이 간행된 오사카는 18세기 초에 이미 38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 시기 에도(江戸) 즉 지금의 도쿄(東京)는 놀랍게도 백 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지녔다고 한다.⁵⁾ 일본은 비록 도시화의 시점은 중국에 비해 늦었지만 수준은 그에 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동아시아는 공히 일정한 수준의 도시화와 상업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를 이끈 상업화는 도시문화, 유흥문화를 추동하였다. 구체적인 정보가 적어서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연구지는 조선에서妓房이 도시 유흥장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를 17세기 중기 이후로 보고 있다.⁶⁾ 물론 이런 유흥문화는 도시화가 앞선 중국에서는 일찍이宋代부터 발달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 시기에 遊廓이 급격히 팽창하였는데, 유곽은 본래 1589년에 교토(京都)에 있었던 女郎町, 柳町이라는 창녀촌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640년에는 이들을 시마바라(島原)로 옮겼다. 한편 에도(江戸)에서는 1615년 거리에 산재한 사창가를 따로 모았는데 이를 모도요시하라(元吉原)라 한다. 이것이 1657년 에도 대화재로 소실되자 아사쿠사(淺草) 근처로 이전하였는데, 이를 신요시하라(新吉原)라고 한다. 또한 오사카에서도 1631년에 新町에 유곽을 만들었는데, 교토, 에도, 오사카의 세 유곽을 3대 유곽이라 한다. 17세기 후반 후지모토 미노야마(藤本箕山)의 〈色道大鏡〉에 의하면 일본 전역 22개 지역에 유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⁷⁾

이러한 도시, 상업, 유흥 문화의 성장은 출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상

5) 吉田伸之 編, 『日本の近世』9-都市の時代, 中央公論社, 1992, 270면 참조.

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1, 169면.

7) 테루오카 야스타카, 정형 옮김, 『일본인의 사랑과 성』, 小花, 2001(暉峻康隆, 『日本人の愛と性』, 岩波新書, 1989), 215~217면 및 染谷智幸, 「遊女・遊廓と「自由圓滿」なる世界 - 井原西鶴の好色一代男を中心に」, 『日本文學』 49, 日本文學協會, 2000, 19면 참조.

업 출판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조선은 도시화 상업화가 뒤떨어진 데다가 시장도 작아서 출판 규모가 일본이나 중국에 미치지 못하였다. 18세기 전반에도 서점을 설치하지는 주장이 있는 것을 보면,⁸⁾ 그때까지도 조선에 서점이 한 군데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책을 중국에서 수입하였고, 당연히 그것들을 팔러 다니는 책거간꾼들이 있었다. 출판 유통의 거점으로서의 서점은 없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책거간은 있었던 것이다. 또 미약한 출판을 보완할 수 있도록 貫冊이 등장하여 상업적 유통의 길을 열었다. 소설 출판의 경우, 이미 16세기에 〈금오신화〉는 물론 중국 작품인 〈전등신화〉 〈오륜전전〉 등을 간행하였지만, 이것은 상업 출판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최초의 상업적 소설 출판은 1725년 전라도 나주에서 간행된 한문본 〈구운몽〉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 다른 증거를 통해 볼 때 대체로 18세기 초에는 상업적 소설 출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

중국은 도시화가 빨랐던 것처럼 출판도 일찍이 16세기 이후부터 급성장을 하였는데, 아직 그 성장세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듯하지만, 明末의 대표적 출판지인 蘇州의 여러 書坊에서의 큰 상업적 이윤을 낼 수 있는 소설의 간행에 주력한 것이 확인된다. 당시의 대표적 작가인 馮夢龍(1574~1646)의 경우, 작가가 士人이면서도 자신의 작품을 시장에 팔 목적으로 창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상업 출판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풍몽룡은 沈德符가 소장하고 있는 〈금병매〉를 서방에 높은 가격에 팔아서 출판하도록 중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¹⁰⁾

일본에서는 〈호색일대담〉이 일본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¹¹⁾ 〈호색일대담〉 등의 베스트셀러는 수천 내지 심지어 수만 책까지 찍기도 했다. 사

8) 鄭尙驥(1678~1752), 廣書籍, 『農圃問答』, 강명관, 앞의 책 참조.

9) 상업적 소설 출판의 시작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 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마련하여 모화술지에 투고한 상태이다. 차후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진세정, 「명말 소주 士人과 출판문화 - 풍몽룡의 통속소설 편찬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1 참조.

11) 竹内誠 監修, 『江戸時代館』, 小學館, 2002, 477면.

이카쿠의 우키요조시(浮世草子)를 비롯하여 일군의 베스트셀러가 등장하자, 사이카쿠의 책이 처음 간행된 오사카에서는 신규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이 20군데나 생길 정도였다.¹²⁾ 당시 출판목록에 등록된 서적의 수를 보면 1670년에 약 3천9백점 정도이던 것이, 1696년에는 약 7천8백점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상업 출판의 급성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흥 문화의 성장, 소설 출판·유통의 급증은 상업 문화와의 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없지 않은데, 종전에도 소설이 있었고, 유흥 문화가 있었지만, 17세기의 그것은 상업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설이 상품이 된 것처럼, 유흥도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소설과 유흥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17세기 동아시아에서 애정소설이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III. 고아와 자유

도시화·상업화와 함께 유흥 문화와 출판의 발달이라는 작품 외적 환경이 작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먼저 주인공 성격의 공통점부터 살펴본다.

〈구운몽〉의 주인공 楊少游의 아버지 楊處士는 양소유가 10살 되던 해 아내에게 “나는 본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더불어 塵世에 인연이 있는 고로 오래 이 땅에 머물더니, 蓬萊 仙子들이 자주 편지하여 오라 하되, 그대 외로움을 염려하였더니, 이제 아이의 영특함이 이러하니, 그대 길이 의지할 곳을 얻어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나를 생각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道人들과 함께 白鹿과 青鶴을 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 버린다. 양소유는 출지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양소유는 아버지를 잃어버려 반고아가 되었지만 대신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 작품은 아버지의 기출을 슬프게 그리지 않는다.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는 양소유의 여성편력은 계속 제약 받

12) 위의 책, 466면.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진행시키자면 아버지가 양소유를 떠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소유가 아버지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양소유는 방중에 가까운 무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방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여성 편력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소유가 여성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양소유에게 쫓겨드는 것이다. 먼저 양소유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진어사의 딸 채봉을 만나 혼약을 한다. 하지만 진채봉의 집안이 난을 만나 이산의 비극을 겪으면서 진채봉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한다. 진채봉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한 것은 양소유의 다음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 그는 낙양에 갔다가 기생 계섬월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路柳牆花와의 약속은 전혀 구속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서울 장안에 와서 정사도의 딸 경패와 혼약을 맺는다. 그러서는 첫 번째 약속한 여인 진채봉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경패와 약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경패의 侍婢면서 閨中朋友인 가춘운도 함께 양소유를 섬기고자 하는 바람에 양소유는 즐지에 두 여인을 얻게 된다. 그러다가 북쪽 땅이 어지러워 사신으로 그곳을 평정하러 가는데, 거기서 적경홍을 만나 인연을 이룬다. 그런데 이때 양소유에게 난관이 생긴다. 황제가 자신의 누이 난양공주와 결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양소유는 정경패와의 혼약을 들어 거절하지만 결국 황제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 이밖에 토번 정벌에 나섰다가 만난 자객 심요연은 물론, 동정용녀 백룡파도 그의 사람이 된다. 이처럼 양소유는 자신은 여자를 찾지 않아도 여자들이 그를 찾아오는 인기 높은 남성이다. 그는 여성을 얻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도 없고, 공을 들여 구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를 지어 솜씨를 과시하면 그만이다. 아버지 없는 자유 세계에서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낭만적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양소유는 반고이지만, 〈옥교리〉의 주인공 秀才 蘇友白은 친애 고아다. 겨우 儒籍에는 올랐지만 고아에다 빈한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다만 인물과 재주가 범상치 않고 뜻이 높으며 시를 잘 짓는다. 그는 자신의 신세는 아랑

곳하지 않고 자기 처지보다 훨씬 좋은 집안의 청혼도 거절하는 그런 인물이다. 여주인공 白紅玉 집안의 청혼도 보기 좋게 거절했다. 전에 백홍옥의 시비를 보았는데 그를 백홍옥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청혼한 백홍옥의 외삼촌 오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有才無色이면 佳人이라 할 수 없고, 有色無才 또한 佳人이라 할 수 없으며, 有才有色하지만 나 소우백과 정이 잘 통하지 않아도 나 소우백의 가인이라 할 수 없다(제5회)”. “절색가인을 만나지 못하면 종신토록 결혼하지 않겠다(제5회)”. 소우백이 양소유와 다른 점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우백은 엄연한 호색한이다. 소우백의 연적 張軌如가 소우백을 “色中餓鬼”(제17회)라고 칭할 정도이다.

소우백이 호색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육욕에만 골몰하는 동물적 색귀는 아니다. 인물, 감정은 물론 시적 재능까지 갖춘 여자와 사랑을 나누겠다는 천하의 욕심꾸러기다. 이처럼 엄격히 상대를 고르니 그 수가 많을 수 없다. 한 명만을 생각했는데, 어찌다 여주인공의 고종사촌인 盧夢梨까지 얻게 되어 아내가 둘이 된다. 양소유는 여덟 여인을 얻게 되니 그 여인들을 만나는 각각의 장면들에 자연 이야기의 초점이 놓이지만, 소우백은 둘에 불과하다 보니 그 여인들을 얻는 과정에 빗어지는 우여곡절에 초점이 놓인다. 여주인공과의 만남은 연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착오로 지연되고, 또 사건이 꼬이고 꼬이면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 것이다.

양소유와 마찬가지로 소우백도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의 자유를 사랑을 찾는 데 쏟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양소유보다는 소우백이 사랑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과 <구운몽>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낭만적 사랑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반면 <옥교리>는 애써 찾아야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사랑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구운몽>과 <옥교리>의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호색일대담>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호색일대담>의 주인공 요노스케(世之介)는 3인의 당대 저명 遊女와 부자 郊人(町人)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亂交의 산물이다. 이러한 출생 배경은 그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 요노스케라는 이름이 ‘浮世之介’의 略語인 것처럼, 속세의 모든 욕망에 이끌리는 타고난 好

色男이었던 것이다. 7살 때부터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54세에는 여자 3,742인, 소년 725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성애의 상대 숫자에서도 요노스케의 성격은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요노스케의性を 향한 몰입은 色狂인 그의 아버지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아버지는 그래도 가정을 생각하며 자식인 요노스케를 사랑했지만, 요노스케는 15세에 과부와 관계하여 낳은 자기 자식마저 버린다. 요노스케는 비단 자식만 버린 것이 아니다. 요노스케는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도 버리고 호색의 길로 나아갔다. 17세 되던 해 아버지가 장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다른 상인에게 보내지만, 그는 장사에는 전연 뜻이 없다. 18세 때에는 비단과 면을 파는 에도(江戸)의 상점에 결산하러 보냈더니, 그 길로 가출하고 말았다. 일은 버리고 호색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형편없이 초라한 신세로 몰락하게 되었을 때, '다행히' 아버지가 거금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 이로써 요노스케는 원기를 회복했다.

34세에 2만5천 貫目的 거금을 물려받은 요노스케는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시기가 왔으며 더욱 많은 遊女를 상대하였다. 이처럼 그는 자식도 모르고 가업도 무시하며 당연히 아버지도 모르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一代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호색일대담〉에서는 '一代'라는 것을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한 처도 없는"(卷8의 5)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一代의 삶이란 오직 쾌락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노스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는 소우백이나 어릴 때 아버지가 가출한 양소유와 달리, 본인이 집을 뛰쳐나온 가출 고아인 셈이다. 스스로 집을 버린 가출 고아의 성격은 반항성으로 압축된다. 반항적으로 집을 나온 만큼 그가 누리는 자유도 훨씬 활달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운몽〉 〈옥고리〉 〈호색일대담〉은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모두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점은 세 작품 모두의 공통점이다. 17세기 동아시아 소설에 공히 호색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호색으로 표현된 사랑 그것은 자유에 기초한다. 자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 당대의 사랑 바람은 자유의 바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 바람은 이

시기 동아시아에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 상업화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현실과 낭만

앞에서 세 작품의 남성 주인공을 통해 작품의 특징을 비교했다. 여기서는 여성 상대역을 통하여 작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구운몽〉의 여성 상대역은 8선녀다. 현실에 던져진 8선녀는 龍女, 王女, 士女, 刺客, 妓生, 侍婢처럼 제각각 다른 지위와 신분을 취하지만, 그들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선녀다. 남악 형산 위부인의 제자들인 것이다. 현실에서도 그들은 仙女로서의 자취를 숨기지 않는다. 진채봉, 정경패는 시나 음악을 통한 교감으로 인연을 맺으며, 난양공주 또한 음악이 매개가 된 황제의 요구에 의해 결혼한다. 심지어 기생들까지 양소유의 시적 재능을 보고 따르지, 그의 경제력은 보지 않는다. 계섬월이 그러했고, 적경홍은 계섬월을 따른다. 정경패가 결심하니, 가춘운이 따라오고, 자객 심요연은 자신이 먼저 덤벼들고, 백룡파는 인연에 따라 그를 쫓는다. 도대체 이들의 연애에는 경제력, 권력 등의 현실적 동기는 그 틈을 찾을 수 없다. 이들의 연애에 현실적인 욕망과 이해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구운몽〉은 현실 여성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仙女들의 환상적 낭만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현실적 권력과 이해에 무관한 듯 행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것을 못가진 것도 아니다. 무관심한 듯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얻는다.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굴러온다. 이는 마치 양소유가 8선녀를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8선녀가 제 발로 들어온 것과 같다. 이런 면에서 〈구운몽〉은 현실성보다 낭만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옥교리〉의 상대 여성은 둘 다 士女다. 백홍옥은 太常正卿의 딸이고, 그의 고종사촌 盧夢梨는 府使의 딸이니, 모두 官人의 女息인 셈이다.才子에게 두 아내 정도는 당대의 혼인제도에 비추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일단 설정 자체가 현실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결합 과정을 보면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현실적인 동기들보다 시적 재능이나 정서적 교감 등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구운몽〉처럼 환몽적 낭만성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금

전 권력 관계에 기초한 노골적인 현실성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다.

반면 〈호색일대담〉에 나오는 여성들은 거의 遊女들이다. 유녀에게 있어서 남성들은 인간이라기보다 돈이다. 〈호색일대담〉 卷5의 1에는 요노스케의 정처가 된 前代未聞의 名妓 요시노(吉野) 이야기가 있다. 한 마천한 대장장이가 요시노를 사모하여 단 한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노가 그를 불러 만나 주는데 막상 요시노를 만난 대장장이는 너무 긴장해 몸이 굳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요시노는 대장장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성을 다해 접대한다. 이 말을 들은 요노스케는 자신을 사모하는 대장장이를 금전과 지위의 고하를 묻지 않고 접대한 요시노를 “기생의 참모습”(女郎の本意)이라면서 특별히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요시노는 특별한 행동을 한 기생이다. 역으로 말해 유녀들의 세계는 철저히 금전 권력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냉혹한 현실 세계인 것이다.

요노스케는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으로 一代의 삶을 즐긴다. 마지막에 60세가 되어 일본 전국의 여인들을 두루 섭렵한 끝에 7인의 뜻 맞는 친구와 함께 여성들만 산다는 전설의 섬 女護島를 찾아 떠난다. 그 섬으로 가기 위해 건조한 배의 이름이 “好色丸”인데, 그 배에는 酒食뿐만 아니라 催淫劑, 落胎藥 등을 잔뜩 싣는다. 그의 현세적 환락 추구는 끝이 없다. 요노스케의 극명한 현실주의적 사고는 같은 작가의 또 다른 작품 〈本朝二十不孝〉의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¹²⁾ 거기에는 “눈 속의 죽순은 채소가게에 있고 잉어는 생선가게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옛날 중국의 효자 孟宗이나 王祥 등이 한 겨울에 어머니를 위하여 죽순을 캐고 잉어를 잡으려고 고생한 것을 비웃은 것이다. 가게에 가서 사면 될 것을 ‘효자’들은 공연히 허세를 부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색일대담〉은 시장 원리 또는 금전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 세계를 그리고 있다. 철저히 돈에 의해 지배되는 遊女の 세계가 냉정하고 비정한 〈호색일대담〉의 현실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는 자신에게 방해가 된

13) 정형, 『本朝二十不孝 小考』, 『일본학보』 20, 1988, 354~361면.

다면 큰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의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 〈호색일대남〉이 추구하는 현실 세계는 그 자체 외에는 다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 공간이며, 모든 일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설령 외부의 초월 세계에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곳에서 생각할 문제지 미리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遊女の 세계는 현실에서는 현실만 생각하지는 철저한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인 것이다.

요컨대 〈구운몽〉이 환몽적이고 낭만적인 선녀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옥교리〉는 현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절제된 이상을 보여주는 士女의 세계를 그리고 있고, 〈호색일대남〉은 금전과 권력에 의해 조종되는 현실적 遊女の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사랑이 중요한 테마이지만, 그 양상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V. 맺음말

17세기 중후반 한중일 삼국에서는 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 소설들은 모두 사랑을 테마로 삼고 있다. 본고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공통 현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설, 특히 애정소설의 인기는 17세기 중후반 각국에 있었던 도시와 상업의 급격한 성장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와 상업의 성장은 유흥문화와 출판문화를 성장시켰고, 그 기반 위에서 애정소설이 대표 장르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의 도시화와 상업화가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그 기반 속에서 탄생한 소설 작품도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구운몽〉은 환몽적 낭만적 성격이 강하고, 〈옥교리〉는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상적 특징을 보이는 반면, 〈호색일대남〉은 철저하고 냉혹한 현실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각 작품이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이 각국의 어떤 사회경제적, 사상적, 문확전통과 연관된 것인지 현단계의 연구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작품이 급격한 도시화, 상업화와 관계되었다고 볼 때, 도시화와 상

업화의 정도 또는 특징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필자의 가설을 밝히는 수준에서 끝을 맺기로 한다.

〈구운몽〉의 환몽적 낭만적 성격은 도시화와 상업화의 미발달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도시화와 상업화, 그리고 중국소설의 영향이 〈구운몽〉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유교 이념이 작품의 결구를 짜임새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옥교리〉의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성격은 도시화와 상업화는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면서도 그 자본주의적 노골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윤리 이념(유교)도 여전히 강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유교 자본주의 특징이 〈옥교리〉에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색 일대남〉의 현실적 특징은 발달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기반하면서 그것을 통제하는 이념적 기반이 약할 때 나타난 현상 아닌가 한다. 당시 일본은 아직 유교가 지배 이념으로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널리 신봉되는 불교나 토착 신도는 자본주의적 현실 논리를 통제하는 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멀기에, 물질주의적 현실 논리가 엄격한 이념적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런 작품이 탄생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만중, 정병욱 역주, 『구운몽』, 교문사, 1984.
- 이하라 사이카구, 손정섭, 이주리에 옮김, 『호색일대담』, 현실과미래, 1998.
- 민두기 편저,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76.
-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 3, 지식산업사, 2001.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1.
- 정 형, 「本朝二十不孝 小考」, 『일본학보』 20, 1988.
- 최용철, 「중국의 역대금서소설 연구」, 『중국어문논총』 13, 중국어문연구회, 1998.
- 황소연, 「오사카의 출판문화전개와 사이카구」, 『일본어문학』 9,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 최수경, 「청대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 중문학과 박사논문, 2001.
- 진세정, 「명말 소주 士人과 출판문화 - 풍몽룡의 통속소설 편찬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1.
- 정병설, 「조선후기 동아시아 어문교류의 한 단면: 동경대 소장 한글 번역본 육교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2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 송진영, 「고대 동아시아의 통속소설연구 - 〈금병매〉 〈호색일대담〉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12, 2002.
- 장지연, 「조선시대 도시사회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명청사연구』 17, 2002.
- 미조구찌 유조, 김용천 옮김, 『중국전근대 사상의 굴절과 전개』, 東과西, 1999 (溝口雄三, 『中國前近代思想の屈折と展開』, 東京大學出版會, 1980).
- 테루오카 야스타카, 정형 옮김, 『일본인의 사랑과 성』, 小花, 2001(暉峻康隆, 『日本人の愛と性』, 岩波新書, 1989).
- 傅道彬 主編, 『中國古典才子佳人小說精選』, 哈爾濱出版社, 1994.
- 王書奴 編著, 『中國娼妓史』, 上海三聯書店, 1932.
- 方正耀, 洪尙勳 譯, 『中國小說批評史略』, 乙酉文化社, 1994(원저는 1990년 출간).
- 井原西鶴, 「好色一代男」, 『西鶴集』 上, 岩波書店, 1957.
- 雨森芳洲, 「橘窓茶話」, 『芳洲文集: 雨森芳洲全集2』,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1980.
- 中村幸彦, 『近世文藝思潮攷』, 岩波書店, 1975.

- ドナルド・キーン, 徳岡孝夫 譯, 『日本文學史』近世編 上, 中央公論社, 1976.
- 長友千代治, 『近世貸本屋の研究』, 東京堂出版, 1982.
- 吉行淳之介, 谷脇理史, 『井原西鶴』, 新潮社, 1991.
- 吉田伸之 編, 『日本の近世』9-都市の時代, 中央公論社, 1992.
- 頼祺一 編, 『日本の近世』13-儒學・國學・洋學, 中央公論社, 1993.
- 谷脇理史, 西島孜哉 編, 『西鶴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1993.
- 張競, 『戀の中國文明史』, 筑摩書房, 1993.
- 張競, 『近代中國と戀愛の發見』, 岩波書店, 1995.
- 竹内誠 監修, 『江戸時代館』, 小學館, 2002.
- 染谷智幸, 「好色一代男の一代 - 寛文~元祿期 畿内における高度經濟成長とイエ
の確立を背景に」, 『國文學論集』 29, 上智大學, 1996.
- 小山裕之, 「清初才子佳人小説における才子佳人像の變化に關する覺書」, 『中國古
典小説研究』 2, 中國古典小説研究會(日本), 1996.
- 染谷智幸, 「遊女・遊廓と自由圓滿なる世界 - 井原西鶴の好色一代男を中心に」,
『日本文學』 49, 日本文學協會, 2000.
- 閻小妹, 「才子佳人小説の類型化について」, 『中國古典小説研究』 6, 中國古典小説
研究會(日本), 2001.
- 磯部祐子, 「才子佳人小説對東亞各國的影響;以金雲翹傳和玉嬌梨爲例」, 『第二屆中
國古代小説國際研討會論文集』, 上海師範大學人文學院 中國社科院文學所中
國古代小説研究中心, 2002.
- Johnson, David, Nathan, Andrew J., Rawski, Evelyn S. ed., *Popular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Pastreich, Emanuel, *The Reception of Chinese Vernacular Narrative in Korea
and Japan*, Harvard Univ. Ph.D Dissertation, 1997.